주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제1독서 : 사도1,1-11
제2독서 : 에페1,17-23
복 음 : 마르16,15-20

숲정이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b)

강론

홍보주일 메시지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 28 차 세계 홍보주일'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매년 세계 홍보의 날을 정해 기념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인간생활에 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커뮤니케이션 테크롤로지는 책, 잡지, 신문에 이어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발전했으며 최근에는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족 공동체가 텔레비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써 얼마 전에 방영된 농구 드라마의 영향은 청소년들에게 과열된 농구붐과 같은 과도한 모방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공동체에게 유해(有害)한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결과가 어찌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텔레비전의 역기능을 철저히 제거하여 올바르고 유익한 사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홍보주일 메시지에서 "교회는 말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한다. 동시에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의 프라이버시, 공적 품위, 기본권의 보장도 역시 존중해야 한다… 국가는 텔레비전이 인간과 종교적 가치를 고양하고 유해한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을 제정, 시행해야 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아울러 가정과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과다노출은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를 단절하고 기도와 공동활동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반드시 다른 뉴스와 오락, 교양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산업자들에게는 기본적인 가정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제작진은 가정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와 감시활동은 텔레비전 매체가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비인간화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익법인을 세워 진정한 인간화를 촉진하고 일반 텔레비전 매체의 비인간화를 억제해야 합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선교 3세기를 맞아 평화방송 텔레비전을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와 사회전체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평화방송 텔레비전은 복음의 대중화와 한국사회의 인간화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교회와 신자들은 교구의 벽을 넘어 평화방송 텔레비전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방송 텔레비전 제작진들도 진리의 선포와 공익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구성원들이 올바른 시청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자 교육은 물론 모니터 활동과 각계각층의 시청자들을 연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일반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가톨릭 언론인, 홍보부분에 종사하는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언론학자와 연구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선포와 창조질서의 보전 그리고 진정한 인간화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아울러 사목훈령 '새로운 시대'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교회 본래의 가르침을 퍼뜨리기 위해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기술로,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메시지를 접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복음화사업은 커뮤니케이션 세계 속에 교회가 적극적이고 공감하며 뛰어드는 쪽으로 손질되어야 한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위원장
이갑수 주교

여 명

급할 때만 찾는 하느님 아니다

한상갑(바오로)

■ 아름답고 순결하고 용감한 믿음

5월9일, 초여름 햇볕이 따갑게 내려쬐는 치명자산 중턱에는 교구 내 각 본당에서 뽑혀온(?) 신자들로 그득하다. 판소리 「루갈다전」으로 순교자 현양대회의 막이 오른다. 그 가족들의 생애를 작곡하며 "그럴 수 있는가?"하며 몇날 몇일이고 감탄도, 의심도, 묵상도, 고민도 했다며 이끔소리를 시작한 명창 형제의 고백에 공감이 간다. 작곡사의 급한 성미 탓인지, 아니면 선견지명인지 그의 소리는 "성녀 한 분이…"로 시작된다. 소리꾼 자신의 고백을 증언이라도 하듯 잠시 소리가 멎는다. 끝내 눈물을 훔치느라고.

10시가 되자 교구 사제단과 롤라이 신부(독일 마인쯔 교구 총대리). 백남익 신부(한국주교회의 사무총장), 김남수 주교(수원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광주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서울 교구장)과 우리 교구장이신 이병호 주교께서 입장하신다. 현양대회 미사를 주례한 김 추기경은 "우리나라 순교성지 가운데 가장 유서 깊은 이곳 치명자산에 성전을 이룩하여 주님께 봉헌함은 온 한국교회의 영광"이라며 축하인사를 하신다. 이 치명자산에 누워 계신 '순교자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았는지" 묵상해 보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자.

천길 낭떠러지의 위기를 몇번이고 넘겼다고 고백하는 루갈다와 요한, 신앙이 무엇이길래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행과 극기의 길을 가셨는지? 신앙이 무엇이길래 가진 바 모든 것과 목숨까지도 내놓고 피흘려 신앙을 증거했는지? 이들이 모든 것과 바꾼 하느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급할 때만 찾는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찾는, 없어서는 안될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느님을 얻으면 부귀영화나 육신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또 나누라고 가르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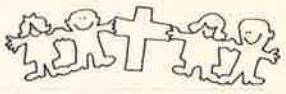
■ 아직도 먼 우리들

순교자 현양대회는 지난 토요일 저녁에 공연된 「한국천주교 순교자와 이 루갈다 동정부부 현양 마당극」으로 막이 올랐다. 꼬박 한 시간 동안이나 청중들을 꽉 붙들어 맸다. 문외한의 눈과 귀로도 보고 들을만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달 말에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한다는 이들의 열성이 부러울 뿐이다. 본당 사목회장이 다섯이나 포함된, 본당에서도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150여 평신도 단원들 앞이라서 더욱 할 말을 잃는다. "순교의 피 영원하리라"라는 노래를 끝으로 청중과 단원들은 하나가 되어 모두 일어서서 「장하다 순교자」를 함께 불렀다. 공연이 끝난 뒤, 성지개발 헌금까지 전달하니 그들의 정성이 고맙고, 사례금도 없는 공연이라서 부끄러울 뿐이다.

「유항검의 생애와 사상 · 동정부부 유 요한과 이 루갈다의 삶과 영성」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선을 보였다. 그것은 처녀성이 주로 강조되던 동정부부의 생애에 "루갈다의 영적인 모성"을 접목시킨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처음으로 발표하며, 칠순이 넘은 노사제(최석우 신부)는 이 루갈다를 "전주 교구의 어머니"로 부르자고 열렬히 제안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다. 처녀이며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영원한 여성상에로의 접근이다.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을 듣는 청중이 너무니 적었다. 이날 강연회는 150이 채 안되는, 그것도 70여 수녀들을 제외하면 볼 품 사납기 그지없는 정경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급한 일은 순교선조들의 삶을 배워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벌려놓은 판에 손님이 없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마당극이 끝난 뒤 덮개도 없는 트럭 위에서 김밥을 먹으며 귀가길을 재촉하는 교우들이 있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현양대회 미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교육대학 입구에서부터 안내에 나선 운전기사 사도회의 땀흘림은 또 얼마나 큰 자산인가. 산등성이 여기저기서 애쓴 젊은이들도 있지 않은가. 다시 일어서자. 순교자 찬가만 부를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자.



숲정이 산책

많이 읽읍시다.

홍복국
비디오 소개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좋은 비디오

청소년

- 사랑의 하모니 92분
- 모모 105분
- 성메리의 총 120분
- 엘라이브 127분
- 사라피나 112분
- 활만하거든 춤 착하게 굴어라 97분
- 성녀 마리아 고레띠 105분

어린이

- 마르셀리노 90분
- 서유기 60분
- 빨강 고무풍선 48분
- 디즈니랜드 1-2 각 56분
- 하느님 어디 계세요 10분
- 피터와 늑대 25분
- 백조의 왕자 60분

성 인

- 황혼 118분
- 기적의 가비 110분
-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130분
- 동행 91분
- 야망의 함정 2시간35분
- 파 앤드 어웨이 141분

그 외

- 작은 세상, 작은 아기들 20분
- 마리아 콤플렉스 55분
- 나는 아니야 25분
- 어머니의 교실 60분
- 멀고 먼 길 20분
- 용서와 평화 12분
- 지구를 살리자 1-2 각 110분
- 의자, 이웃 사랑 20분

대여 : 1개당 1,000원

다 리

성격이 까다롭고 칭찬에 인색한 친정아버지, 학업에 흥미가 없는 아들 조쉬, 이들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으로 엘렌은 뭔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안고 사는 기분이다.

주말에 집에 돌아온 조쉬는 엄마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압박을 풀려고 술에 취해 기절하는데…

풀리지 않는 사소한 갈등의 누적들을 솔직한 대화로 풀어가는 가정드라마

* 24분

제 28 차 홍보주일 교황 담화문(발췌)

텔레비전과 가정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텔레비전은 수많은 가정에 뉴스와 정보, 오락을 전달하는 주된 매체이며 가정의 가치와 행동 양식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 가족 전체의 윤리적 영성적 쇄신은 각 가정의 참다운 쇄신 속에 뿌리박아야 하는 만큼, 1994년 홍보주일의 주제인 "텔레비전과 가정, 올바른 시청을 위한 지침"은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전세계 공동체가 가정생활을 강화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담화에서 저는 부모들과 텔레비전 매체 종사자, 정부 당국자, 그리고 교회에서 사목과 교육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윤리적 사회적 쇄신의 원천으로서 그 역할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텔레비전을 더 한층 효율적인 매체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들은 스스로가 분별 있는 텔레비전 시청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인간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건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는 바른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가정의 선익을 토대로 양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텔레비전 시청의 양과 질을 정하고 자녀들이 개별 프로그램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윤리적 가치를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이끌어 주면서, 자녀들과 이에 대한 토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일종의 '전자 유모(electronic baby-sitter)처럼 날마다 장시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 첫 교육자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산업이 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게 하려면 매체 경영자와 제작자에게 부모들의 정당한 관심이 표명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방송 매체, 광고주와 후원자, 공공 당국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들이 관련단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결혼 예물 전문(금·은·보석·시계)
묵주반지 제작 전문
고 려 보 석
김 형 태(율리아노)
박 태 연(마 르 타)
전동 성당 사거리
☎ 82-9005

향 토 회 관
회갑, 결혼피로연 등
단체손님 환영
안 춘 자(소피아)
성락프리자 지하
(북전주 세무서 앞)
☎ 75-7666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통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풍소)
☎ 88-7717~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부모들은 스스로가 분별 있는 텔레비전 시청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인간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건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는 바른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종사자 모두는 생명과 사랑과 연대의 사회적 기본 공동체인 가정에 헌신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매체의 영향을 인식하여 윤리면 영성면으로 건전한 가치들은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에로티즘이나 폭력, 이혼의 옹호 또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하여 "가정의 존재와 안정, 균형과 행복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산업은 그 공공 책임을 완수해 나가면서, 가정의 요구에 봉사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가치들은 증진시키겠다는 서약을 내포하는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영 방송사든 민영 방송사든 공동선에 봉사하여야 할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 방송사들은 개인의 상업적 이익의 보호 수단도, 권력의 도구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엘리트들의 선전 수단도 아닙니다. 방송은 사회 전체의 행복에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며, 동시에 "사생활, 공중 도덕, 삶의 근본 가치 수호에 대한 개인, 가정, 사회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가정생활의 근간이 되는 인간적 종교적 가치들은 장려하고 유해한 것은 거부하는 프로그램 윤리 기준을 정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 산업과 시청자들 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과 토론회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한편 교회 관련 기관들은 미디어 교육을 비롯, 필름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자원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는 교회 홍보 기관에서도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가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교회의와 교구에서는 텔레비전의 '가정 영역'을 사회 홍보를 위한 사목 계획의 일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텔레비전 종사자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포함한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삶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에 관계하기 때문에, 인간생활과 가정생활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윤리적 종교적 원칙들을 존중하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사목직무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에 기초한 가정은 하느님께서 "사회적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단위"로 삼으신 사람들의 독특한 친교입니다. 텔레비전과 다른 홍보 매체들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친교뿐 아니라 다른 가정들과의 연대의식,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을 유지, 강화시켜 주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의 공동체인 교회는 1994년 세계 홍보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과 매체 종사자, 정부 당국에 사회의 첫번째 공동체요 가장 핵심적 공동체인 가정을 강화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고귀한 소명을 충실히 완수하도록 격려하는 바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요십이 (1081) 김병오

초남리에서 치명자산까지

이책은 유항검의 생애와 사상, 유 요한과 이 루갈다 동정부부의 삶과 영성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의 초석을 놓은 초기 전주교구 순교자들의 삶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

· 가격 : 2,000원
· 천주교 교구청 홍보국 (0652)85-0041

직원채용공고

1. 모집인원 : 남자 ○ 명
2. 응모자격 : 고졸이상 병역필 및 면제자
3.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④자격증사본(소지자한함) 각1통씩 *본인직접 접수
4. 제출기한 : 5.23(일) 오후 5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바람.

전주복자신용협동조합
☎ 88-4404, 88-4330~2

성서잡지 야곱의 우물

매일의 복음말씀을 알기 쉽게 묵상하도록 돕는 성서잡지 '야곱의 우물'이 나왔습니다.

· 1권 1,000원, 1년 10,000원
· 정기구독신청 ☎252-3398

성바오로 서원

프란치스꼬 수도회(O.F.M) 성소자 모임

· 때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 곳 :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37-10 삼호 가든아파트 105동 702호
· 문의 : ☎(062)522-4945~6
· 자격 : 세례받은자, 만30세미만,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건강한 남성

서울방사선과 의원

(종합건강진단센타)
종합검진, 유방촬영
특수촬영, 병리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3

경로수녀회 성소피정

· 때 : 5월21일~22일 오후 4시
· 곳 : 청주시 사천동 29-8
· 문의 : ☎(0431)211-6697

성바오로 서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서적 · 카세트테이프 · 비디오
슬라이드 · CD 등
중앙 성당 옆
☎ (0652)252-3398

텔레비전과 가정, 올바른 시청을 위한 지침

가정생활에 대한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영향

1) 가정의 체험 교환
2) 체험 교환을 통한 다른 가정들과의 연대
3) 지식의 증대
4) 공동체와 세계 도처에 사는 이웃 사람들의 빈곤과 요구에 대한 인식
5) 종교적 감성과 지식의 심화
6) 더욱 성숙하고 책임있는 도덕적 판단 의식
7)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보편적 본질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과 단일성에 대한 인식

가정에 미치는 텔레비전의 부정적 영향

1) 텔레비전 시청으로 공부와 다른 활동을 못함
2) 텔레비전 시청으로 가족간의 활동, 즉 대화, 가정 기도, 놀이 등을 못함
3) 현실과 책임으로부터 멀어지는 괴리
4) 텔레비전의 영상과 메시지에 대한 무비판적 수동적 수용
5) 외설적 폭력적 이미지의 가정 유입
6)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성향의 유입
7) 편견 또는 고정관념의 조장

가정의 현명한 텔레비전 이용

1) 가정의 텔레비전 시청 프로그램 선택과 감독
2) 가족이 함께 시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시청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
3) 지역 주교회의에서 마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에 대한 지침의 활용
4) 텔레비전 방송국, 중계소, 제작자, 후원자, 광고주들에게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찬양하고, 가정의 가치들을 손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배척하는 편지 보내기

텔레비전을 위하여 바치는 기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
영원한 생명과 오늘의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풍부한 선을 베풀어 주신
당신께 흠숭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스승 예수여, 당신 자비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어,
모든 사회 홍보 수단이 결코
인간을 멸망에로 이끄는 일 없이

인간의 유익한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텔레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스승 예수여,
텔레비전의 남용을 기워 갚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작은 희생을
바치나이다. 아 멘

현대피부미용전문학원
미용과 · 연구반
피부관리 · 메이크업
분장(T.V, 연극)
유학, 해외연수
김 금 순(데레사)
☎ 86-2211, 254-3003

개 점
에 이 스 침 대
박 용 옥(소화데레사)
뉴코아 3층
☎ 80-1335

현대전자전주서비스센타
· 컴퓨터 연중 무휴 교육실시
· 제품 공장도가 구입가능
· 수강료 1인 5,000원(주간,야간반)
김 대 식(대건안드레아)
공설운동장 정문 맞은편
☎ 251-1472

형제 카 센타
타이어 · 밧데리 · 제네레다
세루모다, 24시간대기, 출장수리
유 춘 원(미카엘)
우 연 자(수산나)
☎ 225-3956

교구소식

❖교구청 휴무
· 때 : 5월16－17일

❖천호 피정 안내
· 때 : 5월21일－22일
· 주제 : 성령 안에서 새 생활
· 강사 : 정승현 신부
· 문의 : 73－6600

❖교리교사의 날
· 때 : 5월18일(수) 오전9시30분
· 곳 : 윤호관

❖선택인의 날
· 때 : 5월18일(수)
· 곳 : 가톨릭센타

❖가톨릭 문우회 문학기행
· 때 : 5월18일(수) 오전9시20분
· 곳 : 동학혁명 유적지
· 출발 : 가톨릭센타 주차장

❖꾸리실료 도입 25주년 기념 교구 울뜨레아
· 때 : 5월18일(수) 오전10시
· 곳 : 전주해성중고등학교 강당

❖교도소 후원회 야외미사
· 때 : 5월16일(월) 오전10시
· 곳 : 주천
· 출발 : 가톨릭센타

❖주부대학
· 때 : 5월28일(토) 오전9시30분－12시
· 곳 : 화산동 성당
· 주제 : 골다공증
· 강사 : 안득수 교수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5월18일(수)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다리
· 내용 : 성격이 까다롭고 청찬에 인색한 친정 아버지, 학업에 흥미가 없는 아들 조쉬, 이들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으로 엘렌은 뭔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안고 사는 기분이다. 주말에 집에 돌아온 조쉬는 엄마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압박을 풀려고 술에 취해 기절하는데…. 풀리지 않는 사소한 갈등의 누적들을 솔직한 대화로 풀어가는 가정드라마
· 회비 : 1,000원

❖축 ! 영명
· 18일(성에릭) 윤에릭 신부님

성소모임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 때 : 5월22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타
· 문의 : (0652)78－0094

❖인보 성체 수도회
· 때 : 5월22일 오후1시30분
· 곳 : 본원 · 문의 : (0652)84－3231

❖사랑의 씨튼 수녀회
· 때 : 5월22일 오후1시30분
· 곳 : 동산동 성당
· 문의 : (0652)212－3233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회 성소피정
· 때 : 5월21일－22일 오후4시
· 곳 : 서울 명상의 집
· 문의 : (062)571－5004

■권해드리는 책■
· 교리서 예수님 사랑해요 －어린이용－
심흥보 지음/1,500원/성바오로 출판사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랑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환경의 파수꾼

우리 모두는 땅 위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 곧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하느님의 계획을 무시하여 지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무감각한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을 지키는 훌륭한 '환경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꾸르실료 운동 도입 25주년 기념 전주교구 울뜨레아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마태오 11장 7절)
1969－1994
때 : 1994년 5월 18일(수) 10 : 00～17 : 30
곳 : 전주 해성 중 · 고등학교 강당

엄마사랑 롯데점
이유식 · 당뇨식 · 건강식의 42종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들어드립니다.
김 남 수(글로멘스)
안 정 혜(가타리나)
롯데오피스텔 1층 101호
☎ 85－5292, 77－3032

세 화 관 광
· 신혼여행, 국내관광
· 해외여행
－동남아, 일본, 중국
－하와이, 호주, 유럽여행 전문
박 영 만(안드레아)
류 점 숙(레 지 나)
☎ (0653)841－9932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오늘은 사제양성 후원회비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주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 날마다 그날 성서구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 경노잔치에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반대항 윷놀이 대회 및 국수잔치 : 오늘 장엄미사 후. 많은 참여바랍니다.
2. 반미사 안내 : 19일-인후10반, 전 10시
   20일-인후6반 전 10시
3.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 안내
   ①일시-31일부터(매주 화, 수, 목, 금요일) 후 4시30분
   ②대상-국민학교 3학년~6학년
4. 교리교사의 날 : 18일 윤호관
5. 감사헌금 : 익명-오만원. 경노잔치 찬조금 : 대건회-십만원. 노송신협-이십만원, 감사합니다.
6. 모임 : ①대건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17일 어머니미사 후)
   ③재속형제회(21일 후 2시)
   ④꾸리아 : 24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7. 축! 혼인 : 22일 후 1시 신랑-박성노(안토니오) 군
   신부-조순애 양
8. 금주 청소 : 중노15, 16반. 차주 청소 : 중노17, 18반.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주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1. 주의 승천 야외미사 : 5월15일(오늘) 저녁미사는 없음.
   장소-치명자산 성당
   제1부-10시30분 미사
   제2부-- 점심식사
   제3부-친교의 시간
2. 저녁미사 시간 변경 : 5월17일(화)부터 저녁 7시30분으로 변경합니다.
3. 성모의 밤 행사 : 5월28일(토) 저녁미사
4. 성전 보수 헌금 신입하신 분(지난주) : 전주 성가신협 100만원, 리창윤(마르코) 10만원, 17반 반원 일동 10만원, 익명 6만원, 익명 2만원, 지난주 신입금 1백2십8만원. 5월6일 현재 2백6세대 신입하셨습니다.
   ※전신자가 다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 길 평

◉ 예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 "가정과 텔레비젼"
1. 예수 승천 야외미사
   · 일시-오늘 11시
   · 장소-치명자산(도시락은 반별로 준비합니다)
2.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레지오 옥외행사
   · 일시-17일(화) 오전 9 : 30
   · 장소-덕진 왕릉
4. 교리교사의 날 : 18일(수) 9 : 30~17시(윤호관)
5. 교구 울뜨레아 : 18일(수) 9시(해성학교)
6. 부녀회 : 19일(목) 오전 10시
7. 청소 담당 : 21일(토)-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8. 금주 전례 : 해설자-황만금
   독서-장세환 부부
   봉헌-김병화 가족
9. 차주 전례 : 해설자-오교성
   독서-장현상 부부
   봉헌-정진기 가족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 완 재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행

(경) 주의 승천 대축일(본당의 날 가족 운동회) (축)
1. 오늘 미사 : 오전 5시30분(본당)
   오전 10시(성심학교 운동장)
   오늘 행사에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성화회 : 16일(월) 오후 6시
3. 성모회 : 17일(화) 오전 11시
4. 교리교사의 날 행사 : 18일(수) 오전 9시30분 윤호관.
5. 교구 울뜨레아 : 18일(수) 오전 10시 해성학교 강당
6. 삐에따회 : 18일 오전 11시.
7. 영세자 집중교리 : 19일~21일 오후 8시
   면담-19일~20일 오전 10시~12시. 영세식-22일 공식미사
8. 차주 : ①성화회 가족 단합대회(오전 8시30분 출발, 지리산 바래봉)
   ②성마리아 꼬미시움(오후 2시)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축! 주의 승천 대축일 : 야외미사-어두리. 오전 10시30분
1. 모임 : ①장년회-21일(토) 저녁미사 후
2. 성모의 밤 : 28일(토) 저녁 8시.
3. 교구 울뜨레아 : 18일(수) 오전 9시, 해성고 강당(삼천동)
4. 교리교사의 날 : 18일(수) 오전 9시, 윤호관
5. 안나회 성지순례 : 19일(목) 오전 7시30분, 미리내
6. 주일미사 참여와 정성스런 기도와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7. 금주 청소 : 성실하신 동정녀Pr, 차주-천주의 모친Pr
8. 금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최정림 ②송정자
   봉헌-안정만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이순자
   봉헌-이준희 부부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상 근

◉ 바자회에 봉사해주신 모든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1. 성모의 밤 : 17일 저녁 7시 성모님께 드리는 글과 헌시를 계층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부-미사봉헌 준비
2. 교구 울뜨레아 대회 : 18일 오전 10시 해성학교 강당..
   회비-1만원(기념품대 포함) 불참자는 본당신부에게 언락
3. 교리교사의 날 : 18일 전 9시 윤호관. 자모회 수고바람.
4. 첫영성체자 첫고백 : 20일 오후 5시. 세례식-21일 오후 5시.
   첫영성체-22일 공식미사 기념촬영 후 축하식-교리실
5. 선택인의 날 : 22일 전 10시 윤호관, 오천원
6. 홍보주일(주의 승천 대축일) : 성바오로 서원의 "내 친구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만화책입니다.
7. 교도소 후원회 야외미사 : 16일 전 10시 센타 집결→주천
8. 회의 : 성체회, 임마누엘회-공식미사 후
   청년회, 청년성가대-저녁미사 후
   성모회-18일 어머니미사 후
   "축" 혼배 : 21일 12시 신랑-김용오. 신부-김복순(수산나)
   피로연-본당에서

· 성서교실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전동 교육관, 사도행전 · 마태오 복음 강의